

한국십진분류법의 우선순위표 설정에 관한 연구

Suggesting a Plan of Tables of Preference for KDC4

배 영 활(Young-Hwal Bae)* · 오 동 근(Oh Dong-Geun)**

< 목 차 >

- | | |
|---------------------------|-------------------|
| 1. 서론 | 3.1 조기표의 우선순위표(안) |
| 2. KDC 제4판에 나타나는 분류의 우선순위 | 3.2 본표의 우선순위표(안) |
| 3. KDC 제4판 우선순위표(안)의 설정 | 4. 요약 및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복합주제를 합성할 수 없는 문헌에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류기호를 부여하기 위해 분류표에 설정되는 우선순위(preference order)를 한국십진분류법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실제 분류항목 대상으로는 조기표에서 ① 표준구분, ② 문학형식구분 두 곳, 본표에서는 총류의 014-019 서목, 목록, 철학류의 ① 180 심리학, ② 182 차이심리학과 183 발달심리학, 종교류의 230 기독교, 사회과학류의 ① 320 경제학, ② 325.9 회계학, ③ 326.1 상업, ④ 326.2 무역, ⑤ 364.4 범죄학, ⑥ 336 노동문제, ⑦ 338 사회복지, ⑧ 339 사회단체, ⑨ 370 교육학, ⑩ 379 특수교육, 순수과학류의 ① 475 미생물학, ② 481 일반식물학, ③ 491 일반동물학, 기술과학류의 ① 512.8 간호학, ② 539.7 도시계획, ③ 594.5 요리와 594.6 건강을 위한 계층별 요리, ④ 598.1 육아 일반, 예술류의 650 회화 등 22개를 포함해 모두 24개의 우선순위표(안)를 작성하였다.

주제어 : 우선순위, 한국십진분류법, 듀이십진분류법, 문헌분류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plan of tables of preference for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4th edition, based on the study on those i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1st edition. It suggests two tables for the Auxiliary Tables, one for standard subdivisions and one for subdivisions for literature. Twenty-two tables are suggested for the Schedule of ten main classes.

Key Words : preference order, table of preference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yhbae@knu.ac.kr)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odroot@knucc.keimyung.ac.kr)
· 접수일 : 2002. 5. 16 · 최초심사일 : 2002. 6. 5 · 최종심사일 : 2002. 6. 10

1. 서론

문헌에 담겨있는 주제 내용을 특정의 기호로 나타내는 문헌분류에서 주제간의 우선권, 순서, 관계 등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문헌마다 분류기호를 부여하다 보면, 특정 주제 혹은 특정 분류항목에서 시대, 지역, 성별, 연령별 혹은 대상 등에 따라 여러 측면이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있는 문헌들을 접하게 된다. 또한 한 문헌에 두 개 이상의 표준구분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을 때, 분류담당자들은 분류기호를 부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¹⁾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 도서관에서는 자관(自館)의 분류방침이나 규칙을 공식화, 명문화한 분류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는 분류표 구성상의 규칙이 아니라 운영상의 규칙²⁾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문헌분류표에서는 주제의 복합적인 관점이나 특성을 분류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도입하여 왔다. 특히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개발 및 유지 관리로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 듀이십진분류법³⁾(DDC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에서는 이를 열거순서(citation order)와 우선순위(preference order)를 설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우선순위(preferred order)란 “파셋분류표에서 파셋이 배열된 순서. 이 순서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순서를 정하는 목적은 용어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하기 위함이다”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Mary Mortimer는 “논제의 각각의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번호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선택되는 한 분류번호를 나타내는 순서”⁵⁾라 정의하고 있다. DDC에서는 우선순위란 “어떤 주제의 여러 특성을 기호의 합성을 통해 충분히 나타낼 수 없을 경우, 그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기호 가운데 어느 기호를 선택하여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순서”⁶⁾라고 기술하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류번호 부여를 위해 본표 및 보조표에 특정 주제 세목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보조표(table of preference)와 분류주기(preference notes)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1) Mona L. Scott,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1st Edition*.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8, p. 37.

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회 편, 『改正 第4版 韓國十進分類法解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7, p. 21.

3)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st ed*. New York : Forest Press, 1996.

4)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 264.

5) Mary Mortimer, *Lear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Edition 21)*. Lanham, MD. : Scarecrow, 2000, p. 138.

6)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st ed*. New York : Forest Press, 1996. Vol. 1, p. lxii.

있다. 특히 우선순위에 대한 분류주기의 경우 '특정 주제의 세분 주제가 두 개 이상 포함되어 있을 때 맨 앞에 위치한 번호에 분류하라는 유형도 있고, 그 반대로 맨 뒤에 위치한 번호에 분류하라는 유형의 두 가지가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문헌분류에서 주제의 관점이나 특성을 합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열거순서를 따르고, 합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우선순위는 열거순서에 관한 원칙과 적용의 순서를 밝혀주기도 한다.⁷⁾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선순위란 동일한 학문분야 내에서 다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주제의 기호합성에서 우선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지시해 주는 순서로 볼 수 있으며, 문헌분류에서 분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줄이고 일관성 있는 분류번호 부여를 가능하게 하므로 분류자는 이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1996년 DDC의 최신판인 제21판이 발행된 이후, DDC의 분류체계와 주제분야별 분류항목에 대한 개정내용 등에 대한 연구⁸⁾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본표에 설정된 임의규정(option)의 분석⁹⁾과 패킷구조¹⁰⁾ 등에 대한 몇몇의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며, 한국십진분류법(KDC :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과 DDC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¹¹⁾도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KDC도 새로운 학문 발전의 추세를 반영하여 1996년에 제4판이 발행되었으며, 이후 KDC 제4판의 구조¹²⁾와 주제분야별 분류항목¹³⁾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문헌분류의 실무에서 자주 직면하는 분류기호 부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연구는 최근 필자들이 발표한 바 있는 DDC 제21판의 우선순위표에 관한 연구¹⁴⁾를 토대로, KDC 제4판의 분류에 대한 우선순위의 실태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문헌분류표인 KDC 제4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류항목을 유별로 선정하여 직접 우선순위표를 시안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7) 丸山昭一郎 丸山泰通, 『DDC, LCC, NDC 圖書分類の記號變換』. 東京: 丸善, 1984, p. 62.

8) 남태우, "DDC21판의 개정내용과 그 특성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6), pp. 85-104.

9) 오동근, 여지숙,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방안", 《圖書館學論集》 제29집(1998), pp. 313-342.

10) 정해성, 『DDC의 패킷구조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_____, "DDC 음악류의 조합식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1), pp. 147-170.

_____, "DDC의 패킷구조에 대한 연구 : 생명과학과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 pp. 1-44.

11) 정연경, "DDC21과 KDC4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0), pp. 181-205.

12) 권가원, "KDC의 구조와 4판 개정의 기본 방침",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활용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김자후, "KDC(한국십진분류표) 4판에 대한 제언", 《圖書館學論集》 제27집(1997).

13) 박옥화,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철학류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1997), pp. 7-22.; 문지현, 『한국십진분류법 농학분야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한경신,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음악분야 전개상의 제문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1호(1999), pp. 31-60.

14) 배영환, 오동근, "DDC21의 우선순위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2), pp. 187-209.

2. KDC 제4판에 나타나는 분류의 우선순위

KDC 제4판에는 우선순위를 표시할 수 있는 분류기호안내주기(class-elsewhere notes)를 설정하고 있으나, 분류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DDC와 같이 구체적인 보조표나 주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KDC 제4판은 분류주기가 다양하지 못하여 분류기호 부여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기설정이 미흡하여 분류담당자들에게 명확한 길잡이가 되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KDC 연구자들은 분류담당자들이 적합한 분류기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기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가 하면,¹⁵⁾ 주기의 부족과 사용법 설명이 충분치 못하여 사용자 개개인의 자의적 판단의 우려를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많은 곳에 주기를 설정하도록¹⁶⁾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KDC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분류규정을 제시해 두고 있는 《한국십진분류법해설》¹⁷⁾이 발행되어 있으나, 이 해설서에도 분류의 일반 규정과 함께 유별로 몇몇 분류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을 뿐 DDC와 같은 구체적인 분류 우선순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국십진분류법해설》에서 문헌정보학의 경우, 분류 우선순위를 간략히 언급¹⁸⁾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분류작업의 수행은 분류의 일반적 규정을 적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령 표준구분에서 두 형식이 중복될 경우, 주제적 성격을 지닌 항목이 형식적 성격을 지닌 항목에 우선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거나, 동일 도서 내에서 둘 또는 셋 이상의 주제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제 아래 분류하도록 하고, 비중이 동일할 경우 첫 번째 주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구분에 설정되어 있는 다수의 항목 가운데 상호간 주제의 중복 혹은 형식의 중복에 대한 우선순위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분류 실무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동일도서 내에서 복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 선행규칙(first-of-two rule)이나 삼자규칙(rule of three)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KDC도 이제 분류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분류 실무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분류의 우선순위를 보조표나 주기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5) 정연경, *op cit.*, pp. 189-191.

16) 김자후, *op cit.*, p. 372.

17)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회 편, 『改正 第4版 韓國十進分類法解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18) *Ibid.*, p. 48.

3. KDC 제4판 우선순위표(안)의 설정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¹⁹⁾에서 분석한 DDC의 우선순위표 가운데 분류항목이 지나치게 세분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KDC의 분류항목 계층 구조에서 항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다수의 하위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분목(分目)까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표의 시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DC 제4판은 그 기본적인 구분 배열과 계층 구조를 포함한 상당 부분이 DDC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DC 제21판에 설정된 우선순위표의 항목 전개도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 DDC 제21판의 우선순위표를 토대로 KDC 제4판에 적합한 순서로 적용하였다. 아울러 각각의 우선순위표내 분류 항목 배열도 주제의 특성이나 패킷을 별도로 적용하기 보다는 DDC 제21판 우선순위표의 항목 구분 및 배열에서 우리 실정에 큰 무리가 없고, KDC 제4판의 항목과 공통성을 지닌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분, 전개하였다.

3.1 조기표의 우선순위표(안)

3.1.1 표준구분표

KDC 표준구분표는 DDC의 Standard Subdivisions에 해당한다. KDC 제4판의 표준구분표에는 모두 85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주요 내용들은 유사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KDC의 표준구분에서 한 문헌에 두 가지의 표준구분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경우, 한 쪽이 주제성이고 다른 한 쪽은 형식성을 갖고 있을 때에는 주제성 표준구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분류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주제성이나 형식성을 동시에 갖는 표준구분 항목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표준구분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두면 분류자들의 자의적 판단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KDC의 표준구분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표의 시안이다. 이 세목들 가운데 DDC의 표준구분표에 설정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를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한 것이다.

19) 배영환, 오동근, “DDC21의 우선순위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2), pp. 187-209.

<표 1> KDC 표준구분표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전기	-099	특허 및 인증표	-027
보조기법 및 절차	-027	단체(세구분 없는)	-06
지도법, 연구법 및 교육, 교육자료	-07	사람	-092
철학 및 이론	-01	보조적 기법 및 절차	-028
특수 이용자용도서	-0265	교육, 연구, 관련 주제	-07
주소성명록(디렉토리), 인명록	-028	철학 및 이론	-01
특허, 상표, 규격	-029	특정 직업 종사자를 위한 주제	-024
학회, 단체, 협회, 기관, 회의	-06	개인 및 단체 인명록	-025
특수 대륙, 국가, 지방구분	-091-097	특정 대륙, 국가, 지역에 따른 처리	-093-099
일반 지대, 지방, 해양구분	-098	일반적 지역, 장소에 따른 처리	-091
역사 구분	-0901-09069	역사적 시기	-0901-0905
박물관 및 상설전시장	-069	박물관, 수집품, 전시물	-074
교과서 및 문제집	-076	관찰 및 연습	-076
시청각자료	-024	삽도, 모형, 축소형(-0221 예외)	-022
제표, 사물목록, 도보	-025	도표 및 관련 자료	-021
사전, 사전, 인용어사전, 약어집	-03	사전, 백과사전, 용어색인	-03
역사 및 지역구분	-09	역사적, 지리적 취급	-09
연속간행물	-05	연속간행물	-05

<표 1>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한국에서의 교육 지도법”의 경우, ‘특수 대륙, 국가, 지방구분’을 나타내는 -091-097을 적용하여 370.911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지도법, 연구법 및 교육, 교육자료’ -07을 적용하여 370.7에 분류한다.

3.1.2 문학형식구분표

실제 분류업무 현장에서는 두 개 이상의 문학 형식을 함께 지닌 문헌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현재 KDC의 문학형식구분 적용에 있어 《한국십진분류법해설》에서 두 개 이상의 문학 형식이 합해진 저작의 경우 문학형식구분의 순서로 보아 앞선 문학형식구분을 따르도록²⁰⁾ 하고 있는데, 이는 DDC가 제시한 문학형식의 우선순위와는 다소 다른 형태이다.

그런데 KDC의 문학형식구분의 내용과 순서가 DDC의 문학형식구분과 거의 동일하므로, DDC 문학형식 구분표의 -1-8 특정 양식에 설정된 우선순위표를 KDC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도 별무리가 없을 것이며, 분류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학형식 구분을 위한 우선순위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DDC의 우선순위표와 함께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0) 한국도서관협회, *op. cit.*, p. 268.

<표 2> KDC 문학형식구분표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회곡	-2	회곡	-2
시	-1	시	-1
소설	-3	소설	-3
수필, 소품	-4	수필	-4
연설, 웅변	-5	연설	-5
일기, 서간, 기행	-6	서간	-6
르포르타주 및 기타	-8	잡문	-8
유머 및 풍자	-7	유머 및 풍자	-7

<표 2>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현대 중국의 풍자적 소설”의 경우, ‘-7 유머 및 풍자’를 적용하여 827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3 소설’을 적용하여 823에 분류한다.

3.2 본표의 우선순위표(안)

3.2.1 총류

① 014-019 서목, 목록

KDC 014-019 서목, 목록은 DDC의 012-016 ‘개인, 특정 계층의 저작물, 익명 저작물, 특정 지역에서 간행된 저작물, 특정 주제 혹은 학문에 관한 저작물의 서지 및 초록’에 해당한다. 014-019 서목, 목록은 서목의 유형에 따라 모두 16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함 보여 주고 있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와 함께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014-019 개인서목 . . . 장서목록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주제별서목	016	특정 주제 혹은 학문에 관한 저작물의 서지 및 목록	016
개인서목	014	개인 저작물에 관한 서지 및 목록	012
무저자, 익명서목	017.5	익명 및 필명 저작물에 관한 서지 및 목록	014
계층별, 집단별 서목	014.9	특정 계층 저자의 저작물에 관한 서지 및 목록	013
국별서목	015	특정 지역에서 간행된 저작물의 서지 및 목록	015

<표 3>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영국 여성들이 간행한 문학 저작물에 관한 서지”의 경우, ‘계층별, 집단별 서목’을 나타내는 014.9, ‘국별 서목’을 나타내는 015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주제별 서목’ 016에 분류한다.

3.2.2 철학류

① 180 심리학

KDC의 180 심리학은 DDC 150 심리학에 해당한다. 180 심리학 아래에는 심리학의 요소와 내용을 모두 110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세목들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을 제외한 항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와 함께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180 심리학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적성검사	181.12	적성 테스트	153.94
비교심리학	182.9	비교심리학	156
잠재의식	181.38	잠재 의식과 그 변화 과정	154
차이 및 발달심리학	182, 183	차이 및 발달심리학	155
인식, 감정	181.3, 181.7	감각적 인지, 감정, 생리적 충동	152
지능, 기억학습, 의지	181	의식적 정신작용 및 지능(153.94는 제외)	153
응용심리학	189	응용심리학	158

<표 4>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아동의 감정 변화”의 경우, ‘인식, 감정’을 나타내는 181.7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차이 및 발달 심리학’을 적용하여 183.2에 분류한다.

② 182 차이심리학과 183 발달심리학

182 차이심리학과 183 발달심리학은 DDC 155 차이 및 발달심리학에 해당한다. 182 차이심리학 아래에는 개성심리, 민족 및 국가심리학 등 11개 그리고 183 발달심리학 아래에는 유아심리, 아동심리 등 5개 모두 16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세목들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을 제외한 항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와 함께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182 차이심리학과 183 발달심리학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		특정한 상황의 영향	155.93
특정 연령별 심리	183	특정 연령별 심리학	155.4-6
민족심리 및 국가심리	182.67, 182.69	민족 심리학 및 국가 심리학	155.8
진화심리	182.4	진화 심리학	155.7
환경심리	182.3	환경 심리학 (155.93은 제외)	155.9
양성심리	182.2	성 심리학 및 성별 심리학	155.3
개성심리	182.1	개인 심리학	155.2

<표 5>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아프리카 출신 미국 어린이의 감정”의 경우, ‘개성심리’를 나타내는 182.1 혹은 특정 인종을 나타내는 ‘민족 심리 및 국가 심리’를 나타내는 182.67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 순위인 ‘특정 연령별 심리’를 적용하여 183.2 아동심리에 분류한다

3.2.3 종교류

① 230 기독교

KDC의 230 기독교는 DDC 230-280 그리스도교에 해당한다. 230 기독교 아래에는 교의학, 성서, 신앙생활 등의 내용을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세목들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을 제외한 항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와 함께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230 기독교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		특정 주제	220-260
박해 및 순교사	236.9	그리스도교 박해 역사	272
이단 및 이교사	236.902-.905	이단, 이교 역사	273
수도회	236.8	종교적 집회 및 수도회 역사	271
교파	238	그리스도 교회와 각 교파	280
각국 교회사	236.91-.979	각 대륙별, 국가별, 지역별 교회	274-279
교회사	236.9	그리스도 교회사	270

<표 6>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한국 예수회의 활동과 변천”의 경우, ‘각국 교회사’를 나타내는 236.9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수도회’를 적용하여 236.85에 분류한다.

3.2.4 사회과학류

① 320 경제학

KDC의 320 경제학은 DDC 330 경제학에 해당한다. 320 경제학 아래에는 경제학론, 경영관리, 공익사업 등의 내용을 세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세목들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을 제외한 항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와 함께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320 경제학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협동조합	324.2	협동조합	334
재정	329	재정학	336
토지, 에너지, 금융	321.3, 327	노동, 금융, 토지, 에너지 경제	331-333
무역, 교통, 운송		생산, 교역(381-382), 커뮤니케이션	
통신, 방송	326	(383-384), 수송(385-388)	338
거시경제학	321.7	거시경제론 및 관련 주제	339
국제경제	322.8	국제경제	337
사회주의 경제	320.904	사회주의 및 관련 시스템	335

<표 7>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국제경제에서 생산요인으로서의 자본”의 경우, ‘국제경제’를 나타내는 322.8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금융’을 적용하여 327.42에 분류한다.

② 325.9 회계학

KDC의 325.9 회계학은 DDC 657 회계학에 해당한다. 325.9 회계학 아래에는 회계학의 요소와 내용을 모두 7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회계시스템 개발, 특정 조직을 위한 회계 등의 관련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포함해 그 순서와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유사한 분류 항목도 다수 있다. 이 세목들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을 제외한 항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와 함께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325.9 회계학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관청 회계	329.14	특정 사업체 회계	657.8
재무제표	325.93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657.3
-----		회계시스템 개발	657.1
부기	325.92	부기	657.2
원가계산, 회계감사	325.94, 325.956	회계의 특정 분야	657.4
-----		특정 조직을 위한 회계	657.9
도서관회계	023.4	회계의 특정 유형	657.6

<표 8>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정부기관의 원가 회계”의 경우, ‘원가회계, 회계감사’를 나타내는 325.94 혹은 325.956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관청회계’를 적용하여 329.14에 분류한다.

③ 326.1 상학, 상업

KDC의 326.1 상학, 상업은 DDC 381 국내교역에 해당한다. 326.1 상업 아래에는 상업정책, 상품, 판매, 상점 등 모두 28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와 함께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326.1 상학, 상업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상품	326.12	특정 상품과 용역	381.4
도매점, 소매점	325.175-.176	소매 및 도매 교역	381.1-.2
상업지리학	326.1098	지역간 교역	381.5
상업정책	326.11	상업정책	381.3

<표 9>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농산물의 도매 교역”의 경우, ‘도매점’을 나타내는 326.175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상품’을 적용하여 326.12에 분류한다.

④ 326.2 무역

KDC의 326.2 무역은 DDC 382 무역에 해당한다. 326.2 무역 아래에는 무역정책 및 실무의 내용을 모두 16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와 함께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326.2 무역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무역품	326.22	특정 상품 및 용역별 무역	382.4
관세제도, 정책	326.28	관세 정책	382.7
수출, 수입	326.26-.27	수입 및 수출무역	382.5-.6
무역이론	326.01	무역 총론	382.1
통상조약 및 기구	326.29	무역 협정	392.9
무역정책	326.21	무역 정책	382.3

<표 10>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자동차 수출 정책”의 경우, ‘수출, 수입’을 나타내는 326.26-.27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무역품’을 적용하여 326.22에 분류한다.

⑤ 364.4 범죄학과 364.72 범죄 대책론

KDC의 364.4 범죄학과 364.72 범죄 대책론은 DDC 364 범죄학에 해당한다. 364.4 범죄학 아래에는 범죄심리학, 범죄원인론 등 7개 세목 그리고 364.72 범죄 대책론 아래에는 등 5개 세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그 순서와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유사한 분류 항목도 있다. 이 세목들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을 제외한 항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KDC 364.4 범죄학과 364.72 범죄대책론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형벌론	364.15	형벌학	364.6
-----		석방된 범죄자	364.8
범죄자	364.721-.727	범죄자	364.3
범죄 대책론	364.72	범죄 및 비행 방지	364.4
범죄 원인론	364.49	범죄와 비행의 원인	364.2
범죄학	364.4	범죄	364.1
범죄의 역사 및 지역구분	364.409	범죄 및 해소의 역사적, 지리적, 개인적 취급	364.9

<표 11>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일본의 청소년 범죄 유형과 원인”의 경우, 일본을 나타내는 ‘범죄의 역사 및 지역구분’을 적용하여 364.0913 혹은 ‘범죄원인론’을 나타내는 364.49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청소년을 나타내는 ‘범죄자’를 적용하여 364.721에 분류한다.

⑥ 336 노동문제

KDC의 336 노동문제는 DDC 331 노동경제학에 해당한다. 336 노동문제 아래에는 노동정책, 노동관계, 노동운동 등의 내용을 모두 16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와 함께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336 노동문제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직업 선택	336.24	직업 선택	331.702
개인별 특성에 따른 노동	336.5-.7	개인별 특성에 따른 노동력	331.3-6
노동정책 및 행정	336.2	노동력과 시장	331.1
고용	336.22	고용 상황	331.2
노동운동, 노동조합	336.4	노동조합, 노사관리 협정 및 투쟁	331.8
중요 산업노동자	336.92-.989	산업 및 직업별 노동(331.702 는 예외)	331.7

<표 12>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전산직 여성의 노동과 임금”의 경우, ‘중요 산업노동자’를 나타내는 336.92-989를 적용하여 336.966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개인별 특성에 따른 노동’을 적용하여 336.6에 분류한다.

⑦ 338 사회복지

KDC의 338 사회복지지는 DDC 362 사회복지문제 및 봉사에 해당한다. 338 사회복지 아래에는 사회복지의 활동 및 사업과 대상을 모두 22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정치적 억압으로 인한 희생자. 범죄 희생자. 퇴역자, 노동자, 인종, 민족,

국가별 집단 구성원 등의 관련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포함해 그 순서와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유사한 분류 항목도 다수 있다. 이 세목들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을 제외한 항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KDC 338 사회복지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장애인복지	338.3	신체적 질환	362.1
장애인복지	338.3	정신적, 정서적 질환	362.2
장애인복지	338.3	정신 결함자	362.3
장애인복지	338.3	신체불구자에 대한 복지사업	362.4
-----		정치적 억압으로 인한 희생자	362.87
-----		범죄 희생자	362.88
-----		퇴역자	362.86
노인복지	338.6	노령자 구호사업	362.6
아동복지	338.5	아동 및 청소년 구호사업	362.7
-----		노동자 계층	362.85
-----		부인	362.83
-----		인종, 민족, 국가별 집단 구성원	362.84
생활보호	338.4	빈민 구호사업	362.5
가정복지사업	338.18	가족	362.82
사회복지 지역구분	338.09	역사 및 지리적 취급	362.9

<표 13>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신체적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을 위한 구호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를 나타내는 338.6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장애인 복지’를 적용하여 338.3에 분류한다.

⑧ 339 사회단체

KDC의 339 사회단체는 DDC 305 사회단체에 해당한다. 339 사회단체 아래에는 각 단체의 유형을 모두 8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종교별 집단그리고 우리 나라의 특성상 언어별 집단 등의 관련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포함해 그 순서와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유사한 분류 항목도 다수 있다. 이 세목들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을 제외한 항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KDC 339 사회단체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청소년 단체	339.5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른 인물군	305.908
청소년 단체	339.5	연령별 인물군	305.2
여성단체	331.4	성별 집단	305.3-4
사교단체 및 구락부	339.2	사회 계층	305.5
-----		종교별 집단	305.6
애국단체, 동향인단체	339.1, 339.3	민족, 인종 집단	305.8
-----		언어별 집단	305.7
폭력단체, 기타사회단체	331.7, 331.9	직업 및 기타 집단(305.908은 예외)	305.9

<표 14>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서울지역 걸 스카우트의 활동”의 경우 ‘여성단체’를 나타내는 339.4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청소년 단체’를 적용하여 339.5에 분류한다.

⑨ 370 교육학

KDC의 370 교육학은 DDC 370 교육학에 해당한다. 370 교육학 아래에는 행정, 교육과정, 각급 교육 및 특수교육의 내용을 모두 125개의 요목과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370 교육학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교육정책 및 행정	371	교육에서의 공공정책	379
특수교육	379	특수교육	371.9
유아 및 초등, 중등, 사회교육	375-376, 378	특정 수준별 교육	372-374
대학, 전문, 고등교육	377	고등교육	378
학교행정 및 경영	372	학교 및 그 활동	371
교육론	370.8	특정 목적을 위한 교육	370.11
교육과정	374	교육과정	375
표준구분, 교육심리학	370.1-370.9	표준세구분, 교육심리학	370.1-.9

<표 15>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초등학생의 학습 부진아 교육”의 경우, ‘유아 및 초등교육’을 나타내는 375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특수교육’을 적용하여 379.2에 분류한다.

⑩ 379 특수교육

KDC의 379 특수교육은 DDC 371.9 특수교육에 해당한다. 379 특수교육 아래에는 장애인교육, 문제아교육 등의 내용을 모두 18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379 특수교육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천재교육	379.29	영재아	371.95
정신박약아 교육	379.2	정신박약아	371.92
정서적 장애아 교육	379.2	정서적 장애아	371.94
장애인(시청각, 언어, 지체) 교육	379.1	지체 장애아	371.91
불량아, 문제아 교육	379.4	비행 및 문제아	371.93

<표 16>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정신박약아의 언어장애 교육”의 경우, ‘언어장애 교육’을 나타내는 379.1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정신박약아 교육’을 적용하여 379.2에 분류한다.

3.2.5 순수과학류

① 475 미생물학

KDC의 475 미생물학은 DDC 579.1 미생물, 버섯, 조류(藻類)의 자연사에서 특정 주제에 해당한다. 475 미생물학 아래에는 미생물의 생리, 형태, 원핵생물, 바이러스 등 모두 24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유사한 점도 있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KDC 475 미생물학의 우선순위표 (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실용 미생물학	475.16	생물체의 비분류학적 종류	579.16
미생물 생태학	475.15	적용	579.14
유전과 진화	475.13	유전과 진화	579.13
-----		특수 환경, 생태에서의 생물체 특성	579.17

<표 17>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유익한 미생물의 환경에 따른 진화”의 경우, ‘미생물의 진화’를 나타내는 475.13 혹은 ‘미생물의 환경’을 나타내는 475.15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유용성을 나타내는 ‘실용식물학’을 적용하여 475.16에 분류한다.

② 481 일반식물학

KDC의 481 일반식물학은 DDC 581 식물자연사의 특정 주제에 해당한다. 481 일반식물학 아래에는 식물의 생리, 병리, 성숙, 형태, 생태 등 모두 99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유사한 점도 있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KDC 481 일반식물학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실용식물학	481.6	식물의 비분류학적 종류	581.6
식물생태학	481.5	적용	581.4
식물유전학	481.15	유전과 진화	581.3
형성생태학	481.526	특정 환경에서의 식물의 특성, 식물 생태학	581.7
식물지리학	481.9	특정 대륙, 국가, 지역에서의 식물의 취급	581.9

<표 18>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낙동강 주변 약용식물의 군집성”의 경우, ‘식물지리학’을 나타내는 481.9 혹은 ‘식물생태학’을 나타내는 481.5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약용식물을 나타내는 ‘실용식물학’을 적용하여 481.63에 분류한다.

③ 491 일반동물학

KDC의 491 일반동물학은 DDC 591 동물자연사의 특정 주제에 해당한다. 491 일반동물학 아래에는 동물의 생리, 형태, 생태, 서식지 등 모두 50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유사한 점도 있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19>와 같다.

<표 19> KDC 491 일반동물학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본능(행동학)	491.51	습성	591.5
실용동물학	491.6	동물의 비분류학적 종류	591.6
동물생태학	491.5	자연적 적용	591.4
동물유전학	491.15	유전, 진화	591.3
地帶, 海洋, 淡水, 陸棲동물	491.909-96	특정 환경에서의 동물의 특성, 동물 생태학	591.7
동물지리학	491.9	특정 대륙, 국가, 지역에서의 동물의 취급	591.9

<표 19>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호수변 파충류의 계절 변화 적용”의 경우, 호수를 나타내는 ‘담수동물학’ 491.95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계절 변화 적용을 나타내는 ‘본능’을 적용하여 491.51에 분류한다.

3.2.6 기술과학류

① 5128 간호학

KDC의 5128 간호학은 DDC 610.736 전문간호에 해당한다. 5128 간호학 아래에는 각 간호의 형태와 분야를 모두 12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유사한 점도 있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20>과 같다.

<표 20> KDC 512.8 간호학의 우선순위표 (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외과, 산부인과 간호	512.83, 512.86	외과, 산부인과 간호	610.7367
소아과 간호	512.86	아동 간호	610.7362
노인 간호	512.8698	노인 간호	610.7365
각과 간호	512.83-.86	특정 질병 간호	610.7369
정신과, 신경과 간호	512.8	정신과 및 신경과 간호	610.7368
재해 간호	512.879	위급, 비상, 장기 간호	610.7361

<표 20>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심장병 노인의 응급 간호”의 경우, 심장을 취급하는 ‘각과 간호’를 나타내는 512.83-.86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노인 간호’를 적용하여 512.8698에 분류한다.

② 539.7 도시계획

KDC의 539.7 도시계획은 DDC 711 도시계획에 해당한다. 539.7 도시계획 아래에는 도로계획, 녹지계획, 토지계획 등 모두 5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국제 및 국가 수준 그리고 洲, 道 수준의 특정 수준별 도시계획 관련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포함해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유사한 점도 있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KDC 539.7 도시계획의 우선순위표 (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위성도시, 전원도시	539.78	지역의 특정 유형	711.5
지역별, 地區制 및 도시방화	539.73	특정 요소	711.6-8
-----		특정 수준	711.2-4
토지구획, 정리 및 換地	539.76	절차 및 사회적 측면	711.1

<표 21>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농업 전원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구획”의 경우, ‘토지구획’을 나타내는 539.76 혹은 ‘농업지역’을 나타내는 539.73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전원도시’를 적용하여 539.78에 분류한다.

③ 594.5 요리와 594.6 건강을 위한 계층별 요리

KDC의 594.5 요리와 594.6 건강을 위한 계층별 요리는 641.5 요리에 해당한다. KDC 594.5 요리 아래에는 요리를 지역, 재료, 계절 등에 따라 모두 21개의 세목으로, 594.6 건강을 위한 계층별 요리 아래에는 유아, 노인, 환자 등 대상에 따라 모두 10개의 세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KDC의 요리 관련 항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시간절약형 요리와 즉석요리, 하루 세끼 요리 그리고 특정인에 의한 요리 등의 관련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포함해

그 순서와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유사한 분류 항목도 다수 있다. 이 세목들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을 제외한 항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KDC 594.5 요리와 594.6 건강을 위한 계층별 요리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계절용요리, 건강을 위한 계층별요리	594.56, 594.6	특정 상황, 동기, 연령의 요리	641.56
단체, 여행, 야외용 요리	594.57	대량, 단체, 여행, 야외용 요리	641.57
-----		시간절약형 요리, 즉석요리	641.55
조리기구에 의한 요리	594.58	특정 연료, 도구를 이용한 요리	641.58
-----		하루 세끼 요리	641.52-.54
-----		특정인에 의한 요리	641.51
한국, 중국, 일본, 서양요리	594.51-.54	특정 지역, 환경, 민족 요리	641.59

<표 22>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한국에서의 아동용 즉석 요리”의 경우, ‘한국요리’를 나타내는 594.51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건강을 위한 계층별 요리’를 적용하여 594.62에 분류한다.

④ 598.1 육아 일반

KDC의 598.1 육아 일반은 DDC 649.1 육아에 해당한다. 598.1 육아 일반 아래에는 육아를 연령별, 성별, 특수 육아 등 모두 24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 598.1 육아 일반의 우선순위표(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장애아, 불량아, 천재아양육	598.15-.19	특수 아동 육아	649.15
특수 아동양육	598.141-.143	특정 신분, 유형, 관계에 따른 유아의 육아	649.14
아동의 연령별 양육	598.12	특정 연령별 유아의 육아	649.12
아동의 성별 양육	598.13	특정 성별 유아의 육아	649.13

<표 23>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6-10세 남아의 육아”의 경우, ‘아동의 성별 양육’을 적용하여 598.13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아동의 연령별 양육’을 적용하여 598.12에 분류한다.

3.2.7 예술류

① 650 회화, 도화

KDC의 650 회화는 DDC 750 회화에 해당한다. 650 회화, 도화 아래에는 채색 이론, 회화 재료, 주제별 회화 등의 내용을 모두 81개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DDC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유사한 점도 있다. 이 세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DDC의 우선순위표에 따라 그 순서를 부여하여 보면 <표 24>와 같다.

<표 24> KDC 650 회화, 도화의 우선순위표 (안)

KDC 우선순위표(안)		DDC 우선순위표	
개인 화가 및 그들의 작품	653.91-.979	개인 화가 및 그들의 작품	759.1-759.9
회화의 재료 및 기법	652	기법, 절차, 비품, 재료	751.2-751.6
종교화, 풍속화, 초상화	654	도상학	753-758
특정 형식		특정 형식	751.7
국별 회화	653.91-.979	지리적 취급	759.1-759.9
시대별 회화	653.901-.906	발전 시기	759.01-759.07
색채 이론 및 실제	651	색채	752

<표 24>에 설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하여 보면, “중국 개인별 화가들의 풍속화”의 경우, ‘풍속화’를 적용하여 654에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인 ‘개인 화가 및 그들의 작품’을 적용하여 653.912에 분류한다.

이상과 같이 2개의 조기표와 본표상의 22개 분류 항목은 DDC에 설정된 우선순위표 가운데 KDC 제4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우선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KDC의 효율적 이용을 생각한다면, KDC의 다른 분류 항목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후속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우선순위는 분류업무 수행시 자주 접하게 되는 특정 주제에서의 여러 측면이나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문헌들에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류기호를 부여하기 위해 문헌분류표에 설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순위의 개념과 활용 그리고 KDC 제4판에 나타나는 분류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헌분류표인 KDC 제4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류항목을 선정하여 우선순위표의 시안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

는 방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KDC 제4판 조기표에서 우선순위표(안)는 ① 표준구분, ② 문학형식구분 두 곳에 설정하였다.

(2) 본표에서는 총류에서는 014-019 서목, 목록 1개 분류항목에, 철학류에서는 ① 180 심리학, ② 182 차이심리학과 183 발달심리학 등 2개 분류항목에, 종교류에서는 230 기독교 1개 분류항목에, 사회과학류에서는 ① 320 경제학, ② 325.9 회계학, ③ 326.1 상학, 상업, ④ 326.2 무역, ⑤ 364.4 범죄학, ⑥ 336 노동문제, ⑦ 338 사회복지, ⑧ 339 사회단체, ⑨ 370 교육학, ⑩ 379 특수교육 등 10개 분류항목에, 순수과학류에 ① 475 미생물학, ② 481 일반식물학, ③ 491 일반동물학 등 3개 분류항목에, 기술과학류에서는 ① 512.8 간호학, ② 539.7 도시계획, ③ 594.5 요리와 594.6 건강을 위한 계층별 요리, ④ 598.1 육아 일반 등 4개 분류항목에, 예술류에서는 650 회화 1개 분류항목을 포함해 모두 22개의 우선순위표(안)을 작성하였다.

(3) 비교적 방대한 주류이면서 자료의 표현형식보다는 문헌분류의 기본적 원리인 주제에 따라 분류항목을 세분하고 있는 주류를 중심으로, 300 사회과학류에 가장 많은 10개의 우선순위표(안)를 설정하였고, 다음으로 500 기술과학류에 4개, 400 순수과학류에 3개, 100 철학류에 2개, 그리고 700 예술류와 200 종교류에 각각 1개 씩 우선순위표(안)을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KDC를 개정하게 될 때, 분류표의 구성에 주기 혹은 보조표 형식의 우선순위표를 적극 도입하게 되면, 실제 분류업무 수행에 자의적 판단을 줄여줄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류기호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KDC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다른 분류 항목들의 우선순위표의 필요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자후. “KDC(한국십진분류표) 4판에 대한 제언”, 《圖書館學論集》 제27집(1997). pp. 369-389.
남태우. “DDC21판의 개정내용과 그 특성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6). pp. 85-104.
배영환, 오동근. “DDC21의 우선순위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2). pp. 187-209.

-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 오동근. 『DDC연구』. 대구 : 태일사, 2001.
-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KDC의 이해』. 대구 : 태일사, 2002.
- 오동근, 여지숙.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방안”, 《圖書館學論集》 제29집(1998). pp. 313-342.
- 정연경. “DDC21과 KDC4의 비교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0). pp. 181-205.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 편. 『개정 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7.
- 丸山昭二郎, 丸山泰通. 『DDC, LCC, NDC 圖書分類の記號變換』. 東京 : 丸善, 1984.
-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st ed. New York : Forest Press, 1996.
- Marcella, Rita and Newton Robert. *A New Manual Classification*. Aldershot : Gower, 1994.
- Mortimer, Mary. *Lear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Edition 21)*. Lanham, MD. : Scarecrow, 2000.
- Osborn, Jeann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0th Edition : a Study Manual*.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1.
- Scott, Mona 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1st Edition.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8.